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5> '불생(不生)' '무념(無念)' '해탈(解脫)'

경계에 시비하는 마음 없으니 그 자체가 '불생'

불생이 무념이고 무념이 해탈이니 모두가 하나

<선가귀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아름다운 삶으로써 계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42장은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한 선정의 힘이 길러진다고 하였으며, 43장에서는 고요한 선정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 지혜로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선가귀감> 44장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삶으로써 계율을 '불생(不生)'이라 하고, 이 불생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선정이니 '무념(無念)'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 무념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지혜이니 해탈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見境心不起 名不生 不生名無念 無念名解脫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不生)이라 하고, 불생은 무념(無念)이라 하며, 무념은 해탈(解脫)이라 한다.

이 글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4권 무주전(無住傳)에 나오는 글로서 그 앞뒤 내용을 보면 불생이 무념이며 해탈인 것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묻기를, 어떤 것이 '불생(不生)'이고 '불멸(不滅)'이며 어떻게 해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스승이 답변하였다.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이라 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멸할 것이 없으니 '불멸'이다. 이미 생겨나거나 멸할 것이 없으면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다.

'불생'을 '무념'이라고도 하니, 무념은 생멸할 것도 없고 구속될 것도 없으며 해탈할 것도 없다."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그 경계에 집착하여 일어날 마음이 없으니 이를 '불생'이라 하고, 이 불생에는 어떤 경계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이를 '무념'이라 한다. 무념에는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본디 거기에 얽매일 일이 없어 해탈할 것도 없다.

해탈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경계에 얽매이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니, 해탈할 것도 없는 이 자리야말로 '참 해탈'인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불생이 무념이고 무념이 참 해탈이니, '불생'과 '무념'과 '참 해탈'은 그 바탕이 하나라는 뜻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와 똑같은 내용을 <육조단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선지식들이여, 지혜로 살펴서 안팎이 분명해야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안다.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는 '무념'이다.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모든 법을 보되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무념이다. 이 마음을 쓰면 마음이 모든 곳에 두루 하되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깨끗한 본디 마음이 몸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활동하되 경계에 물듦이 없게 하여 오고감이 자유로워 그 쓰임에 걸림이 없는 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재해탈이니, 이를 무념행(無念行)이라고 한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기만 한다면 이는 법에 얽매인 것이며 한쪽에 치우친 견해라고 한다."

이 단락에서 "모든 법을 보되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무념'이다[若見一切法 心不染著 是爲無念]"라고 한 표현은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이라 한다[見境心不起 名不生]"라고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모든 법을 보되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은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무념'이 '불생'이고 '불생'이 무념이 된다.

또 이 단락 앞부분에서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이면 무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반야삼매는 선정을 가리킨다. 삼매는 범어 samādhi의 음역이다. 의역은 등지(等持)·정(定)·정정(正定)이라고도 한다. 등지(等持)라고 번역할 때 등(等)은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거나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어떤 경계도 차별 없이 바라보는 편안한 마음상태를 가리키고, 지(持)는 오로지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므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 나타나는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곧 삼매는 선정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써 '불생' '무념' '해탈'의 경계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저마다 하나씩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삼발이 솥처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야 제 역할을 다하니 세 가지 모두 마음에 두고 함께 닦아나가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말한다.

戒也 定也 慧也 擧一具三 不是單相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 가운데에서 그 어느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에 셋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그 어느 것도 홑으로의 모습이 아니다.

부처님의 삶인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해져 선정의 힘이 길러지고, 선정의 힘이 길러져야 여기에서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율을 떠나 선정과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선정을 떠나 계율과 지혜가 있을 수 없으며, 지혜를 떠나 계율과 선정이 있을 수 없다. 계율 속에 선정과 지혜가 들어있고, 선정 속에 계율과 지혜가 들어 있으며, 지혜 속에 계율과 선정이 들어있다. 계정혜 삼학 가운데 어느 하나를 들면 나머지 둘은 저절로 따라가니 하나 속에 셋이 다 갖추어진다. 어느 하나도 둘을 떠나 홑으로의 자기 모습만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불생'과 '무념'과 '해탈'의 관계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경계에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자체가 '불생'이요 '무념'이며 '해탈'이 된다. 수행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떨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수행은 자랑하지 않는 것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대적광전(大寂光殿)

"아빠! 저 부처님 이름이 뭐야?" "…."

지난호에 '대웅전'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전각의 현판을 보면, 집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대적광전(大寂光殿)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교주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입니다. 대적광전의 적(寂)은 선정(禪定)이며 광(光)은 지혜의 빛을 의미합니다. 바로 선정과 지혜로 가득찬 '빛의 궁전'인 거지요.

주로 화엄사찰에서 이 전각을 본전(本殿)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엄전(華嚴殿)'이라고도 하고 '비로전(毘盧殿)'이란 이름도 붙입니다. 아울러 연화장세계가 진리의 빛이 가득한 대적정(大寂靜)의 세계인 까닭에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의 불상 위치배정은 삼신불(三身佛) 시스템을 기본바탕으로 합니다. 삼신은 법신(法身)과 보신(報身), 화신(化身)을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종 삼신설에 따라 주로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 원만보신(圓滿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 석가모니불을 모십니다.

이런 삼세불외에도 오불육보살(五佛六菩薩)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각이 대단히 웅장하고 광활하지요. 먼저 주불(主佛)인 비로자나불 좌우에 석가삼존처럼 문수와 보현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삼세불의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고, 여기에 아미타삼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더합니다. 또 약사삼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합치면 모두 오불육보살 시스템이 완결되는 거지요. 금산사 대적광전과 해인사 대적광전, 위봉사 대적광전이 유명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6강 불교로 읽은 <님의 침묵>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만해는 <님의 침묵> '반비례'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 하는 때에 당신의 노래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여요."

침묵 안에 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로 분명한 것은 님은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일게다. <금강경> 또한 "여래는 형상으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친절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이어 "내가 말하는 불법(佛法)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님은 형상으로도 볼 수 없고, 목소리로도 들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만해의 말대로, "님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이다.

우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어두고자 한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뿐, 자신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그를 향해 "감싸고 돈다."

님의 침묵, 그 세 가지 이유

그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 자신의 그리움만 깊어가는 강물이게 할 뿐이다. 그는 왜 침묵하는가. 왜 침묵 속에서 홀로 속을 앓고 있는가.

⑴ 그는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48년 동안 긴 혀를 두들겨서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불교'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겸허하게 설정한다. 그 '가르침'은 '그 자체로' 가치를 확보한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도구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망치가 못을 박거나 빼기 위해 존재하듯이, 불교는 '어떤 실용적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불교는 '노파심'의 발로이다.

⑵ 석가를 위시한 여래들은 중생을 위해 화신(化身)으로 왔다. 중생이 어둠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석가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중생이 돈교, 즉 '본래' 깨달아있는 존재라면, 그는 '본시'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나중 과격한 선사들이 "석가가 괜히 와서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켰다"고 불평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따위를 내 앞에서 말했다면, 내가 몽둥이로 두들겨 팼을 것"이라고 콧김을 뿜기도 한 것이다.

⑶ 요컨대 님은 중생의 구원을 위해 발언하지만, 그 발언은 다만 방편이라,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무(無) 없다. 그렇게 마련된 '빈 공간'이 중생들이 자신의 삶을 활개칠 무대가 된다.

님은 중생들의 비원을 위해 이 땅에 와야 한다. 그 님이 없이 어떻게 이 허무한 삶, 작은 걱정, 큰 고난이 겹겹이 중첩된 이 사바의 삶을 견디겠는가. 그러나 님은 그 구원이 '자신에 대한 의지'로 귀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는 중생을 위해 왔지만, 중생을 위해 다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 떠나가지 않는다면, 침묵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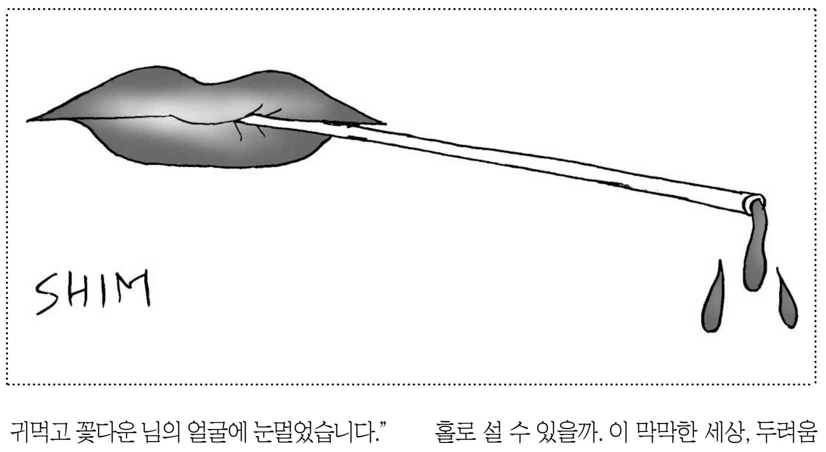
님, 위안이자 구원이신 분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중생들은 그 '부재'의 순간 절망한다. 어떻게 이 팍팍한 삶을 견딜 것인가. 그 전날, 그가 준 구원의 약속은 세상의 고통을 견딜 힘이었고, 그 허무를 이겨줄 든든한 의지처였는데, 그는 더 이상 내 버팀목이자 사다리이기를 포기했다. 그는 떠나감으로 자신의 자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푸른 산빛'으로 보였던 그 희망은 단풍나무 숲의 다양한 채색, 혹은 조락의 예감으로 흩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그 '황금의 약속'은 나만의 환상, 이미지(相)였던 것을….

-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여래, 혹은 불법과의 만남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왜. 그는 삶의 전적인 탈각, 세속적 가치와 기대의 전적인 포기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세속이 주는 즐거움을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님의 속삭임이 어떻게 달콤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금속성으로 날카롭다. 그와의 만남으로 나는 청춘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고 사막으로 토굴로 들어간 수도사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 피안을 약속하는 불교의 권유에, 나는 육진(六塵)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육근(六根)을 닫아 버리도록 떠밀린 것이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는 이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나의 삶일 수 없음을... 그는 다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로서 살 수 있게 해 준 '조력자'라는 것을…." 불교와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안다. 수많은 불법들이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고안되고, 수많은 여래와 불보살들, 그리고 선지식들이 내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해 화현(化現)된 분들임을…." 망치는 못을 빼면 버려지고, 뗏목은 강을 건너서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다. 불보살들의 화신 또한 역할을 다하면 그만 떠나가야 하는 존재이다.

보내는 자,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실제 겪는 이별은 얼마나 아득하고, 슬픈가. "그 의지처 없이도, 나는 홀로 설 수 있을까. 이 막막한 세상, 두려움과 고통이 질편한 이 사바를, 이름 그대로 견딜(saha, endurable) 수 있을까."

존재의 부름에 귀기울여라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이별 앞에 울지 마라. 너는 너 자신 속에 있는 불성, 그 위대한 힘을 끌어올려 이 팍팍한 세상의 고통과 불확실을 견뎌나갈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 위대한 힘의 젖줄은 영원에 닿아있으니, 그 대승(大乘)에 대한 믿음을 기신(起信)하라. 그는 떠나면서 일렀다. "나를 위시하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네 속에 있는 그 부처, 질식하고 있는 부처의 빛과 힘에 의지해라. 그 힘과 빛은 본시 위대한 하나에 닿아있고, 그것이 발현되는 장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들이 같이 있다. 그 호념(護念)을 기억하라."

-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슬픔은 정화와 성찰의 계기이다. "가시내야, 가시내야,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고 읊은 시인은 누구였던가. 하이데거는 슬픔이야말로, 나아가 죽음이야말로, '존재의 부름'에 귀기울이게 하는 계기라고 했다. 슬픔은 찐득한 욕망과 얕은 일상의 거품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네 삶을 고양시키고, 근원으로 회귀하게 한다. 그 성찰이 희망이다. 어느 소설가는 "슬픔도 힘이 된다"고 썼다.

그 성찰이 있어 일상은 의미의 광채를 띤다. 님의 부재를 그리워하면서, 그 부재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는 일상을 법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복종의 삶이다.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나를 밟고 가시어요." 만해는 지금 도저한 개인과 욕망의 시대에, 자비와 헌신의 불교적 가치를 설파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그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대 지금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